

제4권 (3단원 : 주님을 모신 가정)

(제14과) 화목한 가정

· 본문 : 잠언 17:1

· 요절 :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잠 17:1)

· 찬송 : 305장(새찬송가 559장), 495장(새찬송가 438장)

가정은 소중한 사랑의 보금자리로서 사람들은 누구나 화목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꾸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일상 생활이 점점 복잡해지고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해진 까닭에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족 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서로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잃게 되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가정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삭막해져 가는 것은 바로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상식이 통하고 온정이 넘치는 사회를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각자의 가정이 단란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시사철 봄바람이 부는 화목하고 밝은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정다운 대화가 있는 가정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잡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살다보니 가족들끼리 오손 도손 대화를 나눌 시간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사랑이 넘치는 정다운 말이 오고 가야 할 가족간의 대화가 상투적이고 의무적인 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대화하기를 꺼려하여 가족들 사이에 대화가 단절된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대화의 결핍은 고부 또는 장서간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갈등과 오해의 담을 쌓게 만들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들 사이에 막힌 대화의 통로를 뚫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가족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을 토로하는 자세를 나타내야 합니다. 성경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잠 16:24) 하였고, 헬라 격언에는 “한마디 친절할 말이 살을 에이는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가족간의 대화가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줍니다. 서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눌 때 오해와 갈등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가정은 웃음꽃이 피는 화목한 안식처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정한 한마디의 말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 주는 양약이 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역경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정다운 대화의 꽃이 피어나는 가정을 가꾸어 나가는 데 힘과 정성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2.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허물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가족이란 가장 가까워서 함께 생활하는 것 외에도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서로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야말로 가족간에 이해와 사랑이 가장 요구되는 공동체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존립조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성경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잠 10:12)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꼬집기보다는 넓은 아량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기는 바라면서 내 편에서 먼저 남을 이해하거나 사랑하는 데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을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각별한 인내와 노력을 기울여서 그러한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내용이 가족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오해와 불화도 단번에 녹여버리고 이해와 사랑으로써 하나되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3.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선하는 가정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시 127:1)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도록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면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복하듯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합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만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겟에 모으고,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고 백성들에게 이르며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가정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가족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시험과 환난에서 지켜 주시며, 화목하고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물질의 풍요에서 찾으려 하지만, 물질이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잠 17:1) 하신 말씀과 같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은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되고 화목한 가정입니다. 이를 위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되고, 정다운 대화가 있는 가정으로 가꾸는 데 정성을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